

교 회 소 식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성령강림 후 열아홉 번째 주일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10월부터 매달 넷째 주 예배 직후에 교회에서 목장모임이 진행됩니다. 성도의 교제 대신 목장별로 모여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4. Jeremiah Program 식사 봉사가 10월 21일(화) 오후 4시-6시에 있습니다.
5. 목회자 멘토링 컨퍼런스 : 20-23일(월-목),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참석
6. 1월부터 9월까지 재정보고
수입: \$83,662.51 / 지출: \$104,707.46 / 잔액: \$21,044.95
7.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 22일 : 박진홍, 박민아 25일 : 김성하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박가은 / 설교번역: 이예슬
- 10월 안내 및 봉사: 주나 목장

*향후 교회 행사 (Church Plan)

- 추수감사 공동식사: 11월 16일 주일 예배 후

*성서일과 Lectionary (제 42주)

창 32:22-32, 시 121, 딤후 3:14-4:5, 눅 18:1-8

교회세운날 2017.6.11

25-42 10월 19일 (성령강림 후 열아홉 번째 주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 일 예 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Zoom으로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담임목사 : 김경현 목사 (213-357-7614)

예 배 순 서

인도자: 김경헌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신 32:3-4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기도 — 강지연

주일학교 이동 — 주일학교 교사 및 학생

찬송 —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같이

성경봉독 — 요한복음 17장 1-13절 — 인도자

설교 — 하나되게 하소서 — 김경헌 목사

봉헌찬송 —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 5절) — 다같이

봉헌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찬양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다같이

*축도 — 인도자

* 표에는 일어납니다.

목회편지 / 가을날

가을날(Herbsttag) - 라이너 마리아 릴케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드리우시고 들판 위에 바람을 놓아주소서.

마지막 과일들이 영글도록 명하시고

이들만 더 남국의 햇빛을 주시어

그들을 완성시켜 주시고, 마지막 단 맛이

질은 포도송이 속에 스미게 하소서.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고독한 사람은 오랫동안 외롭게 살아가면서

잠 못 이루어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그리하여 낙엽 뒹구는 가로수 길을

불안스레 이리저리 헤맬 것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가을날”이라는 시입니다. 화요일에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옥수수밭에 추수가 이미 끝나버려서 입니다. 벌써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지금 로체스터는 가을을 즐기기 가장 좋은 시기인 듯합니다. 형형색색의 단풍 뿐 아니라 날씨도 이제 제법 선선해져서 청량하기만 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르죠? 시인은 뜨거운 젊음의 시간이었던 여름이 가는 것이 아쉽기만 한듯합니다. 벌써 가을을 맞아야 하는 마음은 조급하기만 합니다. 열매가 빨리 무르익었으면 좋겠는데, 햇별이 조금만 더 내리 쬔면 열매가 더 성숙해질 것 같은데 시간이 가는 것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시인은 지나가는 시간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쇠락해 가는 시간을 성숙의 시간으로 바꿔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짧은 맛이 단맛으로 바껴가게 될 가을 열매들처럼 나이들어 더욱 성숙하게 해달라는 시인의 기도입니다. 젊음의 매력은 짧은 맛에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틀에 의문을 던지고 저항하는 짧은 맛이 없으면 젊음은 매력이 없습니다. 어떤 시인은 “홍시여, 잊지 마라. 너도 젊었을 때는 짧았다는 것을.”이라 노래했죠.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 짧은 맛을 변화시켜 달고 부드러운 존재로 만드는 것인 듯합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짧은 맛 그대로 남아 있으면 다른 이들 눈살만 찌뿌리게 만들 뿐이겠죠. 아이들이 아빠 머리 빠지는 것은 시큰둥 하더니 흰머리가 보인다고 깜짝 놀랍니다. 나이가 먹어 가는 것 같은데 아직 짧은 맛 그대로인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숙하지 못한 채 나이만 먹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이제는 부드럽고 달콤하게 익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봅니다.